

## 구술자료 상세목록 (구술개요 포함)

사업명	<‘옛’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, 용현동 일대의 변화>				
사업개요	인천 미추홀구 학익동, 용현동 일대는 염전-공업지대-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화가 진행된 지역임. 이 중 1960-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, 인근 공장의 관계자, 지역주민, 소상공인,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.				
구술자명	강인자	성 별	여	출생연도	1953년
면담자	송미정	소 속	미추홀학산문화원	감독자	
면담장소	미추홀학산문화원 2동아리실	면담지원	조연희		
면담 일시	2025년 9 월 13 일	회 차	1회	시 간	1시간 30분 초
자료번호	MichuholCA-07-00003369				
구술 개요	<p>구술자는 1953년 전남 진도의 소리 내력이 깊은 집안에서 8남매 중 맏딸로 태어나 성장하였다.</p> <p>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의 서리 추억과 짝사랑 끝에 맺어진 남편과의 결혼 이야기로 삶의 운을 뚫다.</p> <p>1976년 연고 없는 인천으로 이주하여 인하대 인근 단칸방에서 공병 수거 등을 통해 생계를 꾸리기 시작했다.</p> <p>가족 부양을 위해 여러 공장을 전전하던 중, 1988년 동양산전에 입사하여 성실함을 인정받아 반장으로 승진하였다.</p> <p>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일수를 받으러 다니면서도 가슴 한편에 품은 소리에 대한 열망을 잊지 않았다.</p> <p>1984년 조개고개에 마련한 내 집을 스스로 증축하며 삶의 터전을 일구었으나,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비극을 겪었다.</p> <p>상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관광버스 청소 노동은 세월호 참사라는 사회적 파장과 맞물려 중단되었다.</p> <p>현재 조개고개는 재개발로 인해 과거의 흔적과 이웃 간의 정겨운 공동체 모습이 모두 사라진 상태이다.</p> <p>구술자는 자신의 생애 기록을 통해 점차 잊혀가는 옛 시절의 기억과 삶의 모습들이 보존되기를 희망한다.</p>				
주요 색인어	전남 진도, 소리 집안, 8남매 맏딸, 이주 민속, 조개고개, 단칸방, 내 집 마련, 주택 증축, 공병 수거, 대한전선, 동양산전, 반장 승진, 코어 작업, 관광버스 청소, 88년도 취업난, 세월호 참사, 자녀 상실, 공동체 문화, 도시 재개발				
구술 상세목록 내용				시간	관련 파일(비공개)
1. 개인신상				00:40:00 ~00:02:31	
- 1953년 1월 9일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					

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8남매중 맏딸</li> </ul>		
<p>2. 구술참여 동기</p>	00:02:32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나로인해 옛것을 기억해줬으면 한다고함</li> </ul>	~00:03:17	
<p>3. 성장과정과 결혼생활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버지는 장구를 잘치시고 어머니는 고전무용을 잘하시고 집안이 소리집안이라고 함</li> <li>- 어린시절에는 친구들과 옆 동래에 가서 옥수수, 참외 등 서리를 해서 서로 맛있게 나누어 먹었다고 함</li> <li>- 남편이 아랫집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살던 사람인데 혼자 짝사랑을 하였고 동래에서는 서로가 사귀다고 소문이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함</li> </ul>	00:03:18 ~00:13:34	
<p>4. 인천으로 오게 된 계기와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골짜기에서 살다 이웃이 인천에 간다고 해 장난삼아 좋은 데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더니 진짜 편지가 와서 인천에 76년도에 올라 오게 됨</li> <li>- 인하대 정문 쪽 삼거리에 우체국 인근에서 거주를 시작함(방 하나 부엌 하나에 보증금 5만원에 월세 1만원)</li> <li>-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일은 아이가 어려 출퇴근을 하는 일은 못하고 집 근방 식당에서 공병을 2원5십전을 주고 사와 고물상에 3원 5십전을 주고 팔아서 반찬값에 보탬</li> <li>- 대한전선 앞 스탠공장은 모집공고가 떠 이력서를 내고 취업을 해 1년정도 다니고 퇴사함(동양산전 입사하기까지 여러 공장을 다님)</li> <li>- 소리가 배우고 싶어 낮에는 소리를 배우고 밤에는 일수를 받으러 다니면서 식당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함</li> <li>- 동양산전 모집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옆집 사는 동양화학 과장님 이름을 넣어서 이력서를 제출하여 88년도 봄에 입사(동양산전에 취업 일순위가 동양화학 직원의 식구, 지인 순으로 입사가 우선이었다고 함)</li> <li>- 동양산전에서 입사후 1년정도 지나 반장으로 승진하였고 급여는 차이는 없고 코어 감는 일에서 라인(완성)을 탔다고 함</li> <li>- 코어 감는 일은 물량이 딸릴때는 야근이나 철야를 해 물량을 맞춰 주었다고 함</li> </ul>	00:13:35 ~00:51:36	
<p>5. 조개고개에 대한 추억</p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84년에 조개고개에 스라브집을 1천5백만원을 주고 매입하고 불법으로 집을 증축해 2층으로 올리고 옆으로도 방을 늘렸다고 함</li> <li>- 아들이 41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밤에 잠이안와 고생하던 중 주차장에서 관광버스 청소직원을 구하기 전까지 일해주기로하고 2년 정도 근무했다고 함</li> </ul>	00:51:37 ~01:07:37	

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주차장에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기사분들이 5천원에서 1만원을 팁으로 주셨고 안주는 기사들도 있었다고 함</li><li>- 일이 많을 때는 새벽 5시까지 해 뜰 때까지 하시곤 하고 일이 없을 때는 12시쯤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급여는 1백2십만원에서 3십만원정도 받으셨다고 함</li><li>- 세월호 사고 이후 관광버스 운행 예정이 전면 중단되었다고 함</li></ul>		
6. 현재 변화해가는 조개고개의 모습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예전에는 동래주민들과 정을 나누며 밥도 비벼서 나눠 먹고 같이 웃고 즐거웠었다고 함</li><li>- 현재는 옛 집터를 찾을 수가 없고 다 허물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을 다진 상태임</li></ul>	01:07:38 ~01:18:22	
<b>공개여부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체 공개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체 비공개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분 공개	
<b>활용동의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안 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조건부 동의	
<b>특이사항</b>	년도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구술자 본인 나이 기준으로 기억하거나 아이들 나이로 기억을 함	